

‘광주 1호’ 중앙육교 옛터 기억의 공간으로 이어지다

광주일보 캠페인 표지석...철거 잔해 활용 스마트벤치 등 쉼터 조성



기억공간의 표지석과 벤치 주변에 광주일보가 중앙육교 건립 캠페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보도했던 사진을 안내비에 새겼다.

광주 1호 육교인 ‘중앙육교’가 52년 만에 철거<광주일보 8월 6일자 6면>된 자리에 ‘기억공간’이 조성됐다.

지난 1969년 4월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학교 앞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학교앞에 육교를 세워주자’는 광주일보 캠페인(1969년)에 광주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유서 깊은 육교이자 광주시 최초의 육교인 중앙육교(길이 17m·폭 3.4m)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시민들의 쉼터로 되살아난 것이다.

28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철거된 중앙육교 옛터에 중앙육교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최근 제막식을 진행했다.

광주시 동구 동동에 위치한 중앙육교는 노후화와 인근 도심의 쇠퇴로 이용자도 급감했다. 또 과거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대두되면서 지난 8월 철거됐다.



광주시 동구 동동 중앙육교 터에 세워진 '기억공간'의 표지석은 공간 구조상 도로나 맞은편 길기에 서 잘 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광주시 동구 제공>

이에 동구는 50여 년 동안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물이었던 중앙육교의 송고한 건립 역사를 시민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동구는 육교 철거 후 지난 8월 횡단보도, 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보행환경 정비에 나섰다.

9월부터 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 자문을 거쳐 10월에는 디자인 시안을 놓고 총장동 행정복지센터, 무등갤러리, 총장22 등에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다.

기억공간에는 도로쪽으로 ‘사랑의 육교 중앙육교 옛터 1969-2021’이라 적힌 비석이 세워졌으며, 보도안쪽 방향으로 광주일보가 육교 건립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던 당시 광주일보 신문

의 지면과 육교 건립 역사를 담은 안내석이 자리를 잡았다. 또 기억공간에 설치된 태양광 스마트벤치는 주간엔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충전해 휴대전화 유·무선충전을 지원한다.

육교 잔해를 활용해 폭 15m, 높이 2m로 조성된 기억공간은 주민의 보행환경 확보와 안전을 고려한 야간조명과 화단을 조성해 주민들의 쉼터이자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50여 년간 아이들과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온 중앙육교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추억의 공간이자 새로운 동구의 쉼터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대병원, 몽골 환자 원격진료 시행

순환기내과 윤남식 교수, 30대 남성 부정맥 진료
분당서울대병원 이어 국립대병원에서는 두 번째

전남대병원이 최근 지방 국립대병원 최초로 해외 환자 원격의료(이하 원격진료)를 시행했다.

현재 의료법상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해외환자의 경우는 가능하다.

이번 원격진료 의사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윤남식 교수이며, 환자는 몽골의 30대 부정맥을 앓고 있는 남성이다. 이날 진료는 전남대병원 국제메디컬센터에서 화상으로 40분간 진행됐다.

국내에서 해외환자 원격진료는 지금까지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방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기를 원했던 해외환자들이 입국할 수 없는 상황

에서 비대면 진료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며, 앞으로 원격진료 해외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원격진료를 통해 전남대병원은 탁월한 의료수준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또 한번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해외환자유치에도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진료는 전남대병원 윤남식 교수와 통역자, 몽골에서는 환자와 현지 의사 및 통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남식 교수는 평소 국내환자 진료하듯이 환자 확인부터 시작해서 사전 입수한 의료정보를 토대로 환자·현지 의사와 소통하며 진료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최고령’ 호남화력발전 역사 속으로

31일 가동 중단...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국정과제 완료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탄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가 반세기 만에 퇴역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수의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가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가동을 중단한다.

이로써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연내 완료되게 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방침 아래에 2017년 충남 서천 1·2호기와 강원 영동 1·2호기의 문을 닫았다.

또 지난해 12월 보령 1·2호기를, 올해 4월에는 삼천포 1·2호기를 폐쇄했다.

호남화력발전소는 1973년 유류발전소로 상업 운

전을 시작했으며 오일 쇼크 이후 1985년 석탄발전소로 전환됐다.

발전소 부지에는 최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기존 인력 320명 중 290명은 다른 석탄발전 및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재배치되거나 자산정리 업무 등을 위해 잔류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8일 호남화력발전본부에서 열린 퇴직식에 참석해 호남화력발전의 공헌과 임직원의 헌신, 지역사회에 성원에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호남화력이 친환경 발전단지로 변모하는 만큼 지역경제와 국가전력 수급에 계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취학아동 예비 소집

광주교육청 내년 1월 5·6일 1만3529명 대면·비대면

광주교육청이 내년 1월5·6일 1·2차로 나눠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진행한다. 이번 예비소집은 대면·비대면 방식(병행)으로 이뤄진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 학교는 총 153개교(국립 1개교·공립 149개교·사립 3개교)다. 취학 대상자는 2015년에 출생한 적령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16년생 아동, 전년도 취학 유예 아동 등 1만3529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교를 직접 방문,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절차(등기우편·팩스·이메일·학교 내 접수함 등)에 따라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소집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증명서(비대면 참여시 아동 소재 확인 증

빙서류), 그밖에 학교별 요구 서류 등이다. 비대면으로 예비소집 참여를 희망하는 취학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미리 발부 받은 재원증명서를 예비소집 기간에 학교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학교에서 유선연락·가정방문·학교방문 요청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내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하세요”

내달 28일까지 접수, 융자금 최대 3억 연리 2%로 지원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을 대비해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후계농업경영인을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 인자로 영농경력 10년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agri/)를 참고하거나 인

력육성팀(062-613-527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경영능력 제고 및 자립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구 누리집 100만 돌파

광주시 북구의 누리집 방문자가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구민 온라인 소통 공간인 누리집의 누적 방문자가 올 한 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북구에 등록된 인구수 약 43만 명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북구는 그동안 ▲코로나19 종합안내 및 온라인 신청 페이지 구축 ▲정책퀴즈 이벤트 실시 ▲예약 안내서비스 신설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종 7년 연속 획득 등 주민 참여 활성화와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 운영에 주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